

중국어 조동사 활용을 통한 공손표현 고찰*

오 현 주**

<目次>

I. 서론	3. 조동사 활용을 통한 공손 표현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4. 조동사 선택에 따른 공손 정도의 차이
III. 조동사 사용과 공손표현	IV. 결론
1. 조동사와 공손표현의 관계	
2. 조동사의 양태의미	

I. 서론

의사소통 기능과 화용 능력에 대한 교육이 중시됨에 따라 중국어 공손 표현의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언어적 공손 요소가 유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는 원활한 의사소통 뿐 아니라 상호 간의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한다. 중국은 대외 교류가 활발해진 이래 ‘文明(문명)’, ‘禮貌(예의)’ 등의 언어적 공손 문제가 강조되면서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중국어의 공손표현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도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공손한 표현을 익히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무엇을 말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7885)

** 울산대학교 강사

할 것인가를 넘어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어 공손표현의 관점에서 조동사 사용을 통한 공손성과 조동사 선택에 따른 공손 등급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국어 공손표현 및 조동사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조동사 활용과 언어적 공손 관계를 규명하고, 조동사 선택에 따른 공손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법

중국어 공손표현에 관한 국내외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공손표현의 이론과 방법, 내용을 개괄적으로 다룬 연구, ‘공손 원리(禮貌原則)’·‘적절성 원리(得體原則)’ 등 화용이론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손표현의 화용 기능과 구체적인 운용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¹⁾

특히 조동사의 활용을 통한 중국어 공손표현 문제를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 연구 가운데 洪波(2000)와 오현주(2010)의 논문에서 조동사 사용을 통한 완곡 표현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일부 조동사만을 다루었고, 분석 측면에서도 단편적인 설명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화용론적인 접근을 통한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각기 다른 조동사 간의 완곡 정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중국어 조동사에 관한 연구에서 공손 의미나 기능과 연계하여 논의한

1) 관련 연구로는 駱峰(1996), 崔應賢(1996), 丁崇明(2001), 洪波(2000), 김현철·김민영(2009), 오현주(2010), 김정은(2010) 등이 있다. 駱峰(1996)과 崔應賢(1996)은 공손표현의 유형과 방식, 문법 범주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고, 丁崇明(2001)은 ‘동사 중첩’이라는 방식을 통해 공손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장 범주의 완곡 표현 방식을 다룬 洪波(2000), 김현철·김민영(2009), 오현주(2010)는 언어적 공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문법 및 화용 장치들을 제시하였다. 김정은(2010)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공손표현 사용 양상을 대조·분석하고, 그 사용 유형과 특징을 논의하였다. 한국어 공손표현과의 대조를 통해 중국어 공손표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나 부탁화행의 공손표현만 다루고 있어 그 연구 범위가 제한적인 점이 아쉽다.

연구 역시 거의 없다. 중국어 조동사에 관한 기존 연구는 통사적인 측면에서 조동사의 품사, 기능, 범위, 하위분류 등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관련 연구로는 박정구(1996), 박영록(2005), 최재영(2008), 강선주(2009), 王振來(1997, 2002), 王淑清(2006) 등이 있다. 이 중 의미적인 측면에서 조동사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王振來(1997)의 <能願動詞在語用祈使句中的表達功能初探>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동사 사용에 따라 청유의 의미 정도가 달라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能’, ‘要’, ‘可以’, ‘應該’ 등 일부 조동사만을 다루고 있고, 또 의미론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공손성과 관련한 화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어 공손표현과 조동사 관련 선행 연구에 있어서 조동사의 활용 및 선택에 따른 공손 정도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손표현의 관점에서 조동사의 양태(情態) 의미와 화용 의미를 검토하고, 담화 층위에서의 화용 분석을 통해 조동사 각각의 공손 정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공손 등급에서 고도의 예의를 갖춘 공손 등급에 이르는 조동사의 공손 등급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 공손표현 및 조동사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조동사 사용과 공손표현의 관계 및 그 특징을 분석한다. 문장 범주 공손표현 방법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지적한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조동사의 공손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둘째, 조동사의 양태 의미와 화용 의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공손표현 각도에서 공손 의미가 있는 조동사의 범주를 정하고, 정해진 범주 내의 조동사를 공손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조동사의 의미 뿐 아니라 상호 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담화 맥락의 분석을 통해 조동사 각각의 공손 정도를 비교하여 조동사의 공손 등급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셋째, 효과적인 공손 전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공손 원칙’ 뿐 아니라 ‘적절성 원칙’도 고려되어야 한다. 대화 상대자, 대화 장소, 대화 목적 등에 따라 조동사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사(老舍)와

조우(曹禺)의 희곡작품을 주요 텍스트로 하여 담화 층위의 화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원활한 교류에 도움이 되는 공손 전략으로써의 조동사 활용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 텍스트에서 선별한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의 조동사 구문을 대상으로, 조동사 의미 및 대화 참여자의 상호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대화 목적 등의 화용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공손 의미와 공손 정도를 분석한다.

Ⅲ. 조동사 사용과 공손표현

1. 조동사 사용과 공손표현의 관계

중국어 조동사는 그 의미에 입각하여 ‘능원동사’, ‘양태조동사’, ‘양태동사’로 명명되기도 한다. 양태(情態, modality)란 우리가 전달하는 문장이나 말에 대해 화자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입장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제 내용에 대한 가능성(possibility), 허가(permission), 능력(ability), 의무(obligation), 필연성(necessity), 의지(volition), 그리고 예측(prediction) 등과 같은 화자의 태도(attitude)를 표현하는 문법 형태이다(Holliday, 1976; Lyons, 1977; Palmer, 1986). 양태(情態, modality)는 정확한 의사소통의 성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뿐 아니라 공손성에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²⁾ 일반적으로 중국어의 조동사는 모두 양상(양태) 동사이며 양상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³⁾ 따라서 중국어 조동사는 공손성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우선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2) 成方志, <論情態與禮貌之間的關係>, 《濱州師專學報》, 第3期, 2004. 55쪽.
3) 강선주, <양상으로 본 중국어 조동사의 내부적 차이>, 《중국어문학논집》, 56, 2009. 186쪽.

- ① 你去休息。가서 쉬어.
- ①' 你应当去休息。너는 가서 쉬어야해.

- ② 吃呀! 드세요.
- ②' 得吃呀! 드셔야 합니다.

- ③ 你回去! 돌아가세요.
- ③' 你可以回去!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의 비교 예문을 보면, 조동사의 사용 여부에 따라 청원문의 어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청원문에 조동사 ‘應當’, ‘得’, ‘可以’ 등을 사용한 후 지시나 명령의 어기가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①'과 ②'에서는 당위성의 의미를 가진 ‘應當’, ‘得’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요구가 객관성을 띠게 되고, 예문 ③'에서는 허용의 의미를 가진 ‘可以’를 첨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게 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어떤 조동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손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④ 你应当回去! (마땅히) 돌아가야만 합니다.
- ⑤ 你要回去! 돌아가야 합니다.
- ⑥ 你可以回去! 돌아가도 됩니다.
- ⑦ 你必須回去!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應當’, ‘要’, ‘可以’, ‘必須’ 등 서로 다른 조동사를 적용함에 따라 청원 어기가 달라지는데, 어기의 강약은 공손 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청자의 체면과 입장을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따라 공손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2. 조동사의 양태의미

중국어 조동사의 하위분류⁴⁾, 범위⁵⁾ 등에 대해서는 의론이 분분하여 지금까지 일치된 견해가 없다. 최재영(2008)은 중국어 조동사를 양태의미에 근거 하여 ‘인식양태’, ‘도의양태’, ‘원동력양태’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분류는 아래 표와 같다.

양 태	의 미	조 동 사
인식양태	필연	得(děi), 要
	개연	會, 應該, 應當, 應, 該
	가능	能, 能夠
도의양태	필요	得(děi)
	당연	要, 應該, 應當, 應, 該
	허가	能, 可以, 可
원동력양태	능력	可以, 可, 會, 能
	의지	要, 肯, 敢, 想

4) 중국어 조동사의 하위분류에 관하여 최재영(2008)은 “주로 가능, 의지, 필요의 3분법과 가능, 소망, 당연, 필연의 4분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외에도 적게는 ‘가능, 의지’로 분류한 王力(1989)의 2분법에서 많게는 7분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류가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5) 조동사의 범위에 관한 견해 역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요 견해는 다음과 같다.

朱德熙(1982) : 能, 能夠, 可以, 會, 可能, 得, 敢, 肯, 願意, 情願, 樂意, 想, 要, 應, 應該, 應當, 該, 許, 准, 值得, 配, 別, 甬, 好, 容易, 好意思 등 27종

馬慶株(1988) : 可能, 得, 應, 該, 應該, 應當, 須得, 必得, 要1, 犯得著, 犯不著, 會, 可, 可以, 能, 能夠, 好, 免不了, 得以, 容易, 來得及, 樂意, 願, 願意, 情願, 想, 想要, 要2, 要想, 希望, 企圖, 好意思, 樂得, 高興, 樂於, 肯, 敢, 敢於, 勇於, 甘於, 苦於, 懶得, 忍心, 值得, 配, 便於, 有助於, 難於, 易於, 善於, 適於, 宜於, 准許, 許可, 容許, 允許 등 58종

王振來(2002) : 可以, 可, 能夠, 能, 會, 配, 要, 想, 希望, 企圖, 願意, 願, 情願, 樂意, 高興, 樂得, 懶得, 甘於, 肯, 敢, 敢於, 應該, 應當, 應, 該, 須得, 必得, 得, 犯得著, 犯不著, 可能, 來得及, 免不了, 值得, 好意思, 得以, 准, 許, 准許, 允許, 許可, 容許, 容易, 難於, 樂於, 勇於, 有助於, 苦於, 便於, 易於, 善於, 好, 適於, 想要, 要想, 忍心, 一定, 不見得 등 58종

인식양태는 '반드시 그러할 것임'을 나타내는 '필연', '마땅히 그러할 것임'을 나타내는 '개연', '...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가능'의 세 가지로 나눈다. 도의양태는 '그러해야 함'을 나타내는 '당연', '당연'보다 강한 의미를 나타내어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나타내는 '필요', '...를 해도 좋음'을 나타내는 '허가'로 분류한다. 원동력양태는 '...을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능력', '...을 하려고 함'을 나타내는 '의지'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능력과 의지를 나타내는 원동력 양태의미의 조동사는 양상의 특징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는 강선주(2009)의 견해⁶⁾에 동의하는 바, 본 연구의 조동사 범위에서 제외한다.

의사소통과 공손 기능 각도에서 조동사의 양태의미를 살펴보자.

1) 인식양태⁷⁾

(1) 필연: '반드시 그러할 것'임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得(déi), 要

⑧ 回头菜脏了你妈又得说你。

이따가 밝아서 더러워지면 너희 엄마가 분명히 또 네게 야단칠 거야.

⑨ 你这样固执是要出问题的!

너는 이렇게 고집스러우면 분명히 문제가 일어날 거야.

(2) 개연: '마땅히 그러할 것'임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會, 應該, 應當, 應, 該

⑩ 不久你就会听到确实消息的。

멀지 않아 너는 확실한 소식을 들어 거야.

⑪ 他昨天动身的, 今天应该到了。

그는 어제 출발했으니 오늘은 도착했을 거야.

6) 강선주, 앞의 논문, 185-198쪽 참조.

7) 본문에서 언급한 최재영(2008)의 논문에 있는 예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⑫ 这个目标, 经过努力应当可以达到。

이 목표는 노력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을 거야.

⑬ 都六点了, 她该来了。

벌써 6시나 되었으니 그가 오겠구나.

(3) 가능: ‘...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能, 能够

⑭ 天这么晚了, 他能(够)来吗? 我看他不能(够)来了。

날이 이렇게 늦었는데 그가 올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가 올 수 없을 거야.

2) 도의양태

(1) 필요: ‘마땅히 그러해야 함’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得(děi)

⑮ 你得乖乖地坐着, 不要闹!

너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된다. 소란피우면 안 돼!

(2) 당연: ‘그러해야 함’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要, 應該, 應當, 應, 該

⑯ 该出去活动活动!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⑰ 你应当再到楼上去休息。

당신은 다시 위층에 가 쉬어야 해요.

(3) 허가: ‘...를 해도 좋음’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能, 可以, 可

⑱ 你可以先拿去用

우선 가져 가 써도 됩니다.

위의 예문을 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명제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관점을 표현한 인식양태의 예문들은 대화상대의 입장이나 체면을 고려한 공손의미와는 관련성이 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화자와 청자의 관계, 제안이나 충고 상황에서 충고나 의무의 강약 정도가 공손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동사의 양태의미와 공손성의 관계에 입각하여 ‘도의양태’ 의미의 조동사를 기초 연구범위로 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조동사 항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공손기능 측면에서 공손 관련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동사를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⁸⁾

3. 조동사 활용을 통한 공손표현

1) 要

⑱ 鲁四凤(对周萍): 你不要扯, 你现在到底对我怎么样? 你要跟我说明白。

(《雷雨》)

쓸데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나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해요.

⑳ 宋恩子 : (对常四爷)走!

갑시다!

常四爷 : 上哪儿? 事情要交代明白了啊! (《茶馆》)

어디 가려고요? 일을 분명하게 설명해야 해요.

‘要’를 사용함으로써 ‘~하라’ 식의 명령 어기가 약해지고 ‘~해야 한다’는 간절한 요청 어기가 강해져 상대방에 대한 존경 의미를 나타낸다.

㉑ 周冲(对周朴园): 爸, 您不要这样。(《雷雨》)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8) 텍스트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항목이 정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허가 의미가 있는 ‘准’, ‘许’ 같은 조동사는 공손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다.

부정 형식 ‘不要’은 도리 상 ‘~해서는 안 된다’는 약한 충고의 어기로, ‘~하지 마라’ 식의 강경한 제지 어기보다 공손하고 완곡한 표현이다.

2) 應該, 應當, 該

㉔ 瑞丰(对瑞宣): 我想大哥你应当活动一下。(《四世同堂》)

내가 생각하기에 형은 활동을 좀 해야 해요.

㉕ 王利发(对唐铁嘴): 先生, 你喝够了茶, 该外边活动活动去!(《茶馆》)

선생, 차 다 마셨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죠!

‘마땅히 ~해야 한다’는 화자의 견해를 나타내는 조동사를 사용함으로써 간접적인 요구나 제안을 표현하는 완곡한 어기가 되었다. 예㉔은 형에 대한 우려나 걱정이 담겨있음을 알 수 있다.

㉖ 马老太太(对小崔、孙七): “别这么说呀!” 她低声而恳切的说: “咱们北平人不应当说这样的话呀!”(《四世同堂》)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녀는 낮은 소리로 간절하게 말한다. “우리 베이핑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돼요.”

㉗ 周萍(对鲁四凤): (急躁地)凤, 你以为我这么自私自利么? 你不应该这么想我。(《雷雨》)

(황급하게)핑, 너는 내가 이 정도로 이기적이라고 생각해? 너 그렇게 생각하신 안 돼.

부정 형식 역시 도리 상 ‘~해서는 안 된다’는 객관적 견해를 나타냄으로써 직접적인 금지 어기가 아닌 약한 충고나 간접 제지 의미로 어기가 한층 겸손하고 완곡하다.

3) 得(děi)

- ㉞ 金三爷(对李四爷): 四爷, 你一定得回家歇歇去! (《四世同堂》)
쓰이에, 집에 돌아가 쉬어야 해요.
- ㉟ 鲁贵(对鲁大海): (教训的样子)老爷就是老爷, 什么董事长, 上我们这儿就得叫老爷。(《雷雨》)
(꾸짖으며)주인어르신이면 주인어르신이지 무슨 회장
님이니? 이곳에 왔으면 주인어르신이라 불러야 해.

‘~해야 한다’는 의미로 상대방에 대한 청유나 권고의 어기가 되기도 하고, 단호한 명령어를 나타내기도 한다. 예㉞은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 담긴 공손한 표현이나, 예㉟은 아들을 훈계하는 담화내용으로 상대적으로 단호한 요구를 표현한다. 동일한 조동사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화용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4) 可以

- ㊸ 周蘩漪(对鲁四风): 你不要难过, 没事可以常来找我。(《雷雨》)
괴로워 마라. 자주 나한테 오면 되잖아.
- ㊹ 周朴园(对鲁侍萍): (由衣内取出皮夹的支票签好)很好, 这是一张五千块钱的支票, 你可以先拿去用。算是弥补我一点罪过。
(《雷雨》)
(옷 안에서 꺼낸 가죽지갑의 수표에 서명을 하고)됐
어요. 5천위안짜리 수표예요. 우선 가져 가 써도 됩
니다. 내 과오에 대한 보상쯤으로 칩시다.

‘~해도 된다’는 허가 의미의 ‘可以’는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작용을 한다. 이로써 화자의 요구가 약화되고 청자의 권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대화상대자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는 공손하고 완곡한 표현이다.

5) 不用, 甭, 不必

- ㉔ 钱太太(对祁老人): 你也不用去! (《四世同堂》)
어르신도 가실 필요 없어요.
- ㉕ 常二爷(对祁老人): 什么也甭再说了。(《四世同堂》)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 없어요.
- ㉖ 鲁侍萍(对周蘩漪): 太太, 请您不必往下说, 我都明白了。(《雷雨》)
마님, 다 이해했으니 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이는 모두 ‘~할 필요 없다’는 부정형식으로, ‘~하지 마라’는 금지의 명령어기에 비해 부드럽고 완곡하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나 동정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위 예문의 대화자 상호 관계를 보면 신분이나 연배, 사회적 지위가 우위에 있는 상대에게 이와 같은 조동사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화 목적 뿐 아니라 대화자의 지위 역시 조동사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6) 不能

- ㉗ 庞大监: 太客气了吧? 您看, 全北京城谁不知道秦二爷! 您比作官的还厉害! 听说呀, 好些财主都讲维新!
너무 겸손하시군요! 북경성 전체에서 누가 진나오리를 모를라고요? 벼슬아치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지요! 듣자하니 돈 많은 사람들은 모두 유신을 말한다고들 하더군요!
- 秦仲义: 不能这么说, 我那点威风在您面前可就施展不出来! 哈哈!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요. 제가 일으키는 바람이란 것도 나으리 앞에서는 오금도 못 퍼는 걸요! 하하하! (《茶馆》)
- ㉘ 周冲(对鲁大海): 我认为你的偏见太多, 你不能说我的父亲是个矿主, 你要— (《雷雨》)
내가 보기에 당신은 편견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우리 아버지가 광산의 주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앞서 제시한 ‘不應當’, ‘不應該’와 유사한 화용 의미를 나타낸다. 공손 각도에서 일반적인 금지 의미의 ‘別’ 형식과 비교하면 어기가 훨씬 완곡하고 공손하다.

7) 不准/不許

- ㉔ 四嫂(对小妞): 你给我乖乖地在这里, 哪儿也不准去! (《龙须沟》)
 넌 얌전히 여기 있어. 어디에도 못가!
- ㉕ 小顺儿的妈(对小顺儿): 顺儿! 不准和爷爷讪脸! 再胡说, 我就打你去!
 (《四世同堂》)
 순! 할아버지께 까불지 마. 또 그러면 맞을 줄
 알아.
- ㉖ 曾思懿(对曾霆): 不许走! 不许去! (《北京人》)
 못가! 못 간다고!
- ㉗ 周朴园(对周萍): 不许多说话。 (《雷雨》)
 잔말마라.
- ㉘ 鲁侍萍(对鲁四风): 凤儿, 不许这样跟爸爸说话。 (《雷雨》)
 평아, 아빠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라.

‘불허한다’는 의미의 허가의 부정형식 조동사로, 직접적이고 강경한 명령어기를 나타낸다. 예문을 보면,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지하는 담화내용으로, 발화자의 지위가 대화상대보다 절대적인 우위에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4. 조동사 선택에 따른 공손 정도의 차이

앞 절의 분석을 토대로 공손 각도에서 조동사 선택이 공손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1) 긍정 형식의 조동사

(1) 要, 得

‘~해야 한다’ 식의 강한 충고나 의무를 나타냄으로써 어기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다. 또 발화자의 지위(사회적 지위, 신분, 연령 등)가 대화상대보다 상대적인 우위에 있거나 혹은 수평관계에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

(2) 應該, 應當, 該

‘마땅히 ~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당위성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이나 강경한 요구 어기가 약화된다. 발화자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위에 있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으나 스스로 권위를 낮추어 겸손하게 표현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3) 可以

대화자 상호 간 관계의 제약 없이 두루 사용되는 공손한 표현이다.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함으로써 발화자의 요구를 완곡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2) 부정 형식의 조동사

(1) 不准, 不許

앞서도 언급했듯이, 주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강경하게 금지시키는 상황에 사용된다. 앞서 제시한 예문처럼 부모가 자식을 훈계할 때는 이와 같은 직접적이고 강경한 어기로 명령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반대로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사용할 경우는 공손 정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공손하지 못한 불손한 표현이 된다.

(2) 不能, 不應該

요구에 대한 객관성이 제고되고, 충고의 강도가 약화됨으로써 상대방은 그 요구나 충고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상호 관계 측면에서는 수평관계

에 있는 상호 간에, 또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모두 상대에 대한 약한 충고나 우려, 존경을 나타낸다.

(3) 不用, 不必

간접적이고 완곡한 금지 표현으로, 주로 자신보다 지위가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상위자에게 사용된다.

조동사 선택에 따른 공손 정도를 다음과 같이 등급화 할 수 있다.

긍정형식: 要, 得 < 應當, 應該, 該 < 可以

부정형식: 不准, 不許 < 不要, 不能, 不應當, 不應該, 不該 < 不用, 不必

각각의 조동사가 나타내는 공손 의미나 공손 정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화자 상호관계, 대화 목적 등의 화용 요인에 따라 적절한 조동사를 취하여 상황에 맞는 공손한 중국어를 구사해야 한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중국어 조동사 사용과 공손표현 관계를 살펴보았다. 조동사의 양태의미와 공손성 관계에 입각하여 공손 의미나 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동사를 연구 범위로 정하고, 담화 층위의 화용 분석을 통해 조동사의 공손 의미와 조동사 사용을 통한 공손표현 기능을 살펴보았다. 또 조동사 선택에 따른 공손 정도를 비교·분석하여 공손 관점에서 조동사의 공손 등급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사(老舍)와 조우(曹禺)의 희곡작품을 텍스트로 하여 시대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 일반적인 담화내용과 같은 구어 자료를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의사소통 기능과 화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손 표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가 중국어 공손표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중국어 조동사의 화용 의미 교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중국어 공손표현은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분야이다.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References>

1. Cheng Fangzh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dality and Politeness". *Journal of Binzhou Teachers College* 20.3, (2004).
2. Choi Jaeyoung. "The Research on Chinese Auxiliary Verb (1)". *Chinese Studies(INSTITUTE OF CHINESE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 43, (2008).
3. Hong Bo. "Euphemistic level Expressions of Imperatives in Chinese". *Journal of Binzhou Education College* 6.3, (2000).
4. Kang Sunju. "On the Internal Difference among Auxiliary Verbs in Terms of Modality". *The Society for the Research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56, (2009).
5. Oh Hyunju. "The analysis of euphemism used in Chinese sentence structur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Chinese Literary Society of Yeong Nam)* 56, (2010).
6. Park Jungku. "Modal Auxiliaries in Mandarin Chinese". *Chinese Literature (The Society for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26, (1996).
7. Park Jungku. *Chinese Pragmatics*. Seoul: Shinsung Publisher, 2005.
8. Park Youngrok. "Problem of function and usage of auxiliary verb 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in Korea* 21, (2005).
9. Qiu Shude. "A Pragmatic Study of Modal Verbs". *Journal of Foreign*

- Languages* 4, (1995).
10. Wang Shuqing. "The Auxiliary Verb Research Overview". *Journal of Yili Education College* 1, (2006).
 11. Wang Zhenlai. "Expression Functions of Modal verb in Pragmatic Imperatives". *Journal of Jinzhou Education College* 3, (1997).
 12. Wang Zhenlai. "Expressional Functions of Modal verb in Sentences". *Journal of Liaoning Normal University(Social Science Edition)* 3, (2002).
 13. Xu Shili. *A Pragmatic Study on Chinese Communication of Public Relations*. Seoul: Hakgobang, 2006.
 14. Zhang Jianshe, Wu Xi. "Influence and Control of Values of Modality over Politeness Scales". *Journal of Jiangxi Institute of Education* 2, (2004).
 15. Zhu Guanming. "Modality and Chinese Modal Auxiliaries". *Shandong Foreign Language Teaching* 2, (2005).

<참고문헌>

1. 成方志, <論情態與禮貌之間的關係>, 《濱州師專學報》, 第3期, 2004.
2. 최재영, <중국어 조동사 연구(1)>, 《중국연구》, 43, 2008.
3. 洪波, <漢語祈使句委婉程度的表達>, 《濱州教育學院學報》, 第2期, 2000.
4. 강선주, <양상으로 본 중국어 조동사의 내부적 차이>, 《중국어문학논집》, 56, 2009.
5. 오현주, <중국어 문장 범주 완곡 표현 연구>, 《中國語文學》 56, 2010.
6. 박정구, <漢語的助動詞>, 《중국문학》, 26, 1996.
7. 박정구 역, 《중국어화용론》 서울: 신성출판사, 2005.
8. 박영록, <중국어 助動詞의 범위와 기능의 문제>, 《중국언어연구》,

- 21, 2005.
9. 邱述德, <情態動詞的語用分析>, 《外國語(上海外國語大學學報)》, 第4期, 1995.
10. 王淑清, <助動詞研究綜述>, 《伊犁教育學院學報》, 第1期, 2006.
11. 王振來, <能願動詞在語用祈使句中的表達功能初探>, 《錦州師範學院學報》, 第3期, 1997.
12. 王振來, <談能願動詞在句子表達中的作用>, 《遼寧師範大學學報》, 第3期, 2002.
13. 허세립, 《중국어 의사소통의 화용론적 연구》 서울: 학고방, 2006.
14. 張建社·吳熹, <情態量值對禮貌等級的影響和制約>, 《江西教育學院學報》, 第2期, 2004.
15. 朱冠明, <情態與漢語情態動詞>, 《山東外語教學》, 第2期, 2005.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oliteness through the use of auxiliary verbs and the grade of politeness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auxiliary verbs from Chinese polite expression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s the use of auxiliary verbs and relationship of polite expressions,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on Chinese polite expressions and auxiliary verbs, and analyzes the meanings of auxiliary verb's politeness via pragmatic analysis at conversation layers. This study also comparatively analyzes the degree of politeness according to the selection of auxiliary verbs. This study sets the auxiliary verbs meaning 'need', 'must', and 'permission' as basic study scope, and sets the auxiliary verbs judged to have the meaning or function of politeness as the study scope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of auxiliary verb's modality meaning and

politeness. Chinese auxiliary verb is also called ‘can-wish verb’, ‘modal auxiliary verb’, and ‘modal verb’. Modality indicates the subjective position or attitude that a speaker has on the sentences or speeches. Modality not only plays an important role for precise communication, but functions important in terms of politeness. All the Chinese auxiliary verbs are generally said to have the meaning of modality. Therefore, Chinese auxiliary verbs indicate polite expressions. The meaning and degree of politeness expressed by each auxiliary verb are not always absolute. In this regard, people need to use polite Chinese suitable for each situation by using proper auxiliary verbs according to pragmatic factors including the mutual relationship of speakers, conversation purpose and conversation place.

Key Words : 현대중국어(Modern Chinese), 조동사(Auxiliary Verbs), 양태 의미(Modal Meaning), 공손성(Politeness), 공손등급(Politeness Degree)

